

Church in Exile  
Bo Brady  
August 18, 2024

교회 망명기 보 브래디 2024년 8월 18일

Set up: One-off message, back to Ephesians next week. Sprinkling some of these messages in because we're trying to read the times well and speak into the issues that are impacting our lives on the daily right now.

**The crowd was listening to everything Jesus said. And because he was nearing Jerusalem, he told them a story to correct the impression that the Kingdom of God would begin right away. He said, "A nobleman was called away to a distant empire to be crowned king and then return. Before he left, he called together ten of his servants and divided among them ten pounds of silver, saying, 'Invest this for me while I am gone.' Luke 19:11-13**

The KJV says, "occupy til I come."

Occupy = occupant.

**Two kinds of occupant.** My proposition to you is that we are *renters*. We are contractually bound to earth, but covenantally committed to heaven. We are heirs of another kingdom, citizens of another kingdom. Renters here. We have the certainty that heaven is coming, BUT...how do we LIVE in the meantime? How do we occupy this home well?

Let's visit a verse that is so often yanked right out of context and slapped on greeting cards and we need to understand it better in order to live better.

**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Jeremiah 29:11**

Jeremiah 29:11 is beautiful, hopeful, inspiring to us who live here in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This would have been a very different read for the exiles in Babylon, though. Because, while it's good news, it comes on the heels of some very bad news.

(Quick history of Judah to Babylon...) Israel - 19 kings, 0 good ones. Judah - 20 kings and 1 queen - 8 good kings and 1 truly terrible queen. Israel falls to Assyria in 721 B.C. and they're pretty much lost to history. Judah survives another two hundred years but when king Josiah dies in 609, his sons take over and they cannot keep the wheels on

the bus. At the same time, Babylon is emerging as a superpower on the world stage, gobbling up nations left and right. They turn their sights on Judah and build a siege wall around it - it finally falls in 586 B.C. and most of the people of Judah are carried away captive to Babylon. Enemy territory. They are marched over 500 miles to home where they know none of the customs, they don't speak the language, they are bottom of the food chain. Their names are changed, their rights are stripped away, they are captives in a foreign land, even though they are still technically heirs to the throne in Judah.

Into this chaos and misery and despair comes Jeremiah's letter. The words of God. They are looking for hope, desperate for hope. And the letter says this...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to all those I carried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5 "Build houses and settle down; plant gardens and eat what they produce. 6 Marry and have sons and daughters; find wives for your sons and give your daughters in marriage, so that they too may have sons and daughters. Increase in number there; do not decrease. 7 Also, seek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city to which I have carried you into exile. Pray to the Lord for it, because if it prospers, you too will prosper." 8 Yes,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Do not let the prophets and diviners among you deceive you. Do not listen to the dreams you encourage them to have. 9 They are prophesying lies to you in my name. I have not sent them," declares the Lord.**

**10 This is what the Lord says: "When seventy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 will come to you and fulfill my good promise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Do you see the difference context makes? **70 years.** You're going to be here a long time. How they spend this season in exile is going to make all the difference in their lives and legacy - as individuals and as a people. If I'm newly living in exile, five hundred miles and a whole world away from my home and I hear "you're going to be here 70 years" - I'm not going to hear much after that. I'm not going to be able to hear above the sound of my own weeping. But later, after I've had a good cry, after I've exhausted my other options, I would pull that letter out again and read the hopeful part and I would read and re-read and read again the part that tells me how to LIVE while I'm stuck in a place I don't want to be. Yes, I'm here in this terrible new place. How do I make this place home? God, through Jeremiah, gives the people very explicit instructions on how to occupy their space in history and their space in Babylon until He comes back for them. And I think these instructions are invaluable for us as well.

The instructions center around the word INCREASE. This is big because they are a people from whom EVERYTHING has been stripped. They are a bare bones version of

themselves. They've literally been starving for years. God says: I'm going to use this time in exile to put some meat on your bones, to build you back up, to get you to your fighting weight and to remind you who you are. And this change I'm going to work inside of you, is going to spread out to this new place where you are living. This is how he tells them to do it; and I believe there is so much treasure and instruction here for us as well...as renters in a land that isn't our permanent home.

설정: 오늘은 단발적인 메시지로, 다음 주에 에베소서로 돌아갑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읽고 이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끔 전달하려고 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귀족이 왕으로 임명되어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열 명의 종들을 불러 온 열 문화를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투자하라.'" 누가복음 **19:11-13**

**KJV** 성경에서는 "내가 올 때까지 점령하라(Occupy til I come)"라고 말합니다.

점령한다는 것은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종류의 거주자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임차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계약적으로 묶여 있지만, 하늘에 언약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왕국의 상속자이자, 다른 왕국의 시민입니다. 이곳에서는 임차인입니다. 천국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집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할까요?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맥락에서 벗어나 인사말 카드에 붙여진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예레미야 **29:11**은 아름답고 희망차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들에게는 이 구절이 매우 다르게 읽혔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아주 나쁜 소식에 이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의 역사 요약...) 이스라엘 - **19**명의 왕, **0**명의 선왕. 유다 - **20**명의 왕과 **1**명의 여왕 - **8**명의 선왕과 **1**명의 매우 나쁜 여왕.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고, 역사의 기록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유다는 **200**년을 더 버티었지만, 기원전 **609**년에 요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좌를 이어받으면서 국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바벨론은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으로 떠오르며 좌우의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목표로 삼아 포위벽을 세우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함락시켜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적의 영토로 말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500**마일 이상을 행군하며, 언어도 모르는, 식민지에서 바닥에 있는 새로운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권리가 박탈되고, 그들은 외국에서 포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유다의 왕좌의 상속자라는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 혼란과 절망 속에 예레미야의 편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찾고 있었고,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5** 집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며, 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라. **6**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딸을 낳으며,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을 시집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게 하라. 너희는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7**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 그 도시가 번영하면 너희도 번영하리라. **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말하게 한 꿈들을 믿지 말라. **9**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0**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11**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거니와, 그것은 평안의 계획이요 재앙의 계획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맥락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70**년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망명 중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개인으로서나 민족으로서나 그들의 삶과 유산에 모든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 제가 새로이 망명 생활을 시작하고 집에서 **500**마일 떨어진 이국 땅에 있고 "당신은 **70**년 동안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이후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울음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충분히 울고 다른 방법을 다 써본 후에, 그 편지를 다시 꺼내서 희망찬 부분을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며, 내가 원하지 않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끔찍한 새로운 장소에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내 집으로

만들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공간을 차지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침들은 우리에게도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들은 "증가"라는 단어에 중심을 둡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뼈만 남은 존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실제로 굶주려 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망명 중인 이 시간을 사용하여 너희 뼈에 살을 붙이고, 너희를 다시 세우며, 너희를 싸울 수 있는 체중으로 돌아가게 하고,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이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이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곳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시며, 우리는 이 지침들 속에서 많은 보물과 지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영구적인 거주자가 아닌 세입자로서 말입니다.

## 1. BUILD

-Settle in. Make a home here. Put down some roots. Increase your presence here. (EX: Our new neighbors - we didn't want to take a plant and a note until we knew they were occupants and not just flippers.) I'm challenged by this one, because my temptation in exile is to judge instead of build. Unless a project is going well, I don't really want to put my name on it. I'd rather stand around and talk about what a dump this place is and how I could do it better if I was in charge. Building is hard. **Building does not require us to abdicate our vision for a better kingdom, but it does require that we stop throwing stones and pick up a hammer.**

Proverbs 14 has been a guiding scripture for my life as a wife and mom: ***The wise woman builds her house, but the foolish tears it down with her own hands.***

I can live as a temporary resident in this world without destroying it - with my words, my actions, my attitudes. And I can live here effectively with people who don't share my same belief in a bigger, better kingdom.

## 2. PLANT

Increase the life-giving resources of the place where you live. What can we, as followers of Jesus, plant and grow while we're living in exile?

James, the half-brother of Jesus writes to the new diaspora - facing fierce persecution - and says this: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By his good conduct let him show his works in the meekness of wisdom. But if you have bitter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s, do not boast and be false to the truth. This is not the wisdom that comes down from above, but is earthly, unspiritual, demonic. For where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exist, there will be disorder and every vile practice. But the wisdom from above is first pure, then peaceable, gentle, open to reason, full of mercy and good fruits, impartial and sincere. And a harvest of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James 3:13-18**

What we cultivate in captivity says so much about who and Who's we are. We plant goodness. Righteousness. Wisdom...into our world. We plant the character of Jesus by living out the way of Jesus in our world. We sow and sow and sow - and sometimes we reap something good in the here-and-now, but mostly we're sowing into the vision Jesus entrusted to us when He said, "Occupy until I come."

12 Then you will call 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13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14 I will be found by you," declares the Lord, "and will bring you back from captivity.[b] I will gather you from all the nations and places where I have banished you," declares the Lord,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e place from which I carried you into exile."

### **3. MARRY**

Another word for this: Commit. Marriage is about a lot of things - love, companionship, pleasure, intimacy, yes - but ultimately, marriage is about cultivating and creating something for the future. Marriage is about forming a faithful and trustworthy alliance. God is asking His people to commit to increasing their interdependence so that they will also increase their influence and headcount and strength and security. **To commit to marriage and a family requires a sense of hope in the future.** (EX: In 1964, my grandmother was in a dither over the "population explosion" and how no one should have children anymore because Jesus was going to come back soon and times were going to get so rough that all the children would be persecuted and killed or carried off into slavery. "No one will want to be responsible for children," she said, and she was so thankful that her three children were all done having children. Except then my mom found herself unexpectedly pregnant with me...and she went for a walk with her two sisters-in-law at an event and tearfully confessed she was pregnant and afraid to tell their mother-in-law. As soon as she told her secret, my aunt Nellie nodded soberly and said, "Me too." And my aunt Carol..."Me too." All three of them were pregnant and afraid to tell my grandmother who was certain Jesus was coming back any minute. Not only did my mom go on to have me, and my aunts had my dear cousins Randy and Angie, but the three of us went on to become parents to TWENTY more kids. And I don't think any of us are sorry to have been born or to have the kids we have. Have we

lived through hard, hard times? Yep. But my kids have been a comfort and a strength to me through those times and not a burden. Some days when things felt nearly impossible, the thing that kept me hanging on was remaining focused on the future I was building for my children and grandchildren. Legacy. Commit to legacy. Commit to leaving something behind that is strong and beautiful. Whether or not that includes marriage - for some it won't - I don't think any of us are excused from the work of committed,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that create life-giving alliances and increase our footprint of peace in our world.

#### 4. **SEEK PEACE**

This instruction has never meant more to me than it means right now. We are living pretty angsty in exile here in America. Division is everywhere. Hatred and fighting and strife hangs like a dense fog here over the roof of our little rental. It's ugly and heavy and confusing. And sometimes I'm tempted to wade into all the issues that feel tangled up around us and try to unravel them, string by string and get to the bottom, get to an answer that sounds right or a principle that we can all sign off on because THEN we'll be able to trust God and live happily here until He comes back. But the minute I get into debates that are focused entirely on the kingdoms of this world, I find myself in an endless loop of anger and frustration and feel myself moving farther and farther from peace. And as much as I care about the issues - and I'm not suggesting that we shouldn't, and as much as I care about capital-T TRUTH, I cannot deny that I have pledged my life to the King of the Kingdom whose ingredients ar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f I claim to know Him, and yet there is no demonstrable evidence of righteousness, peace or joy in my life - then I might be way too focused on fixing up my rental and not focused enough on the Kingdom He is building.** We are called to seek the peace of the place where He's planted us. And I know that may sound like I'm suggesting some sort of scary compromise. But seeking peace is not the enemy of walking in righteousness. Seeking peace is not an attempt to get all the people of Babylon to agree with my views and it's ALSO not a willingness to change my views to match theirs. Seeking peace is being willing to build and not break, to take the time necessary to get a right heart and right attitude before speaking, to **never exchange love for people with a love for being right.** Seeking peace means being willing to let Jesus shape my heart and my responses and my attitude toward the city where I am a renter. Seeking peace means being willing to **pray for the city's peace at LEAST as much as I talk about how much I disagree with it's policies.** I cannot know true peace if I am not walking in righteousness - these ingredients are interdependent - and I cannot know true joy if I have no peace. It is a requirement as an heir to the kingdom of God that I walk in all three. However, I CAN know true peace and joy, even when others choose not to walk in righteousness. I can build a home in the

chaos, knowing - this isn't my final destination and I would love to bring life to this sad world I currently and temporarily occupy.

My favorite place in the whole world is Florence, Italy. I visited while my husband was alive and after he died, decided that Florence would be good for my soul. I went for a month. Lived in the city. Met the neighbors. Learned some of the language and the recipes. Heard the church bells outside my window every morning. Nearly every moment was magic for me. It was as close to heaven as I think I'll get here on earth.

Later, I visited Little Italy in San Diego. It was cool. I found some good Italian food and heard some of the language and at certain points - it was almost like being in Italy.

Yet later, I went to Olive Garden. Stucco walls with grapes painted on them. A Bienvenuto sign in the lobby. And yet...I heard none of the language and ate none of the food of Italy. At no time did I think, "Wow - I totally forgot I was in a franchise restaurant in Bend, Oregon."

It's okay that Olive Garden isn't Italy. It's just really problematic if I try to make it be. How absurd, if I'm the girl passing the petition outside the doors of OG insisting they speak Italian or ring church bells because that's how it's done in the real Italy. How obnoxious if I tip over the tables in Olive Garden because their food doesn't taste like it does in Tuscany. The best Olive Garden can be is a small, commodified facsimile of the real thing. And the best thing I can do is remind people of that and point them toward what IS real and true and beautiful.

The way of Jesus: Be a renter in this world who also creates a beautiful and life-giving home. Build. Plant. Commit. Seek peace.

## 건설하기

- 이곳에 정착하세요. 이곳에서 집을 만드세요. 뿌리를 내리세요. 이곳에서의 존재감을 키우세요. (예: 우리의 새 이웃들 - 그들이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 단순히 집을 되팔기 위해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식물이나 노트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망명 중에는 건설하기보다 판단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제 이름을 그 위에 걸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곳이 얼마나 엉망인지, 내가 책임을 맡았다면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건설은 어렵습니다. 건설은 더 나은 왕국을 위한 비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대신 망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에서 지침이

되어온 성경 구절은 잠언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거주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제 말, 행동, 태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나은 왕국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효과적으로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심기

-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생명을 주는 자원을 늘리세요. 예수의 추종자로서 우리가 망명 중에 심고 자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복형제 야고보는 새로운 디아스포라에게 격렬한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3-18** 우리가 포로 상태에서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많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선함, 의로움, 지혜를 우리 세상에 심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의 성품을 우리 세상에 심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습니다 - 때로는 현재에서 좋은 것을 거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비전을 위해 심습니다.

## 결혼하기

- 다른 말로는 '헌신하기'입니다. 결혼은 사랑, 동반자 관계, 기쁨, 친밀감 등 여러 가지에 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결혼은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양육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켜 그들의 영향력, 인구, 힘, 그리고 안전을 증가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결혼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예: **1964**년에 저의 할머니는 '인구

폭발'에 대해 대단히 걱정하셨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시련의 시기가 올 것이므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며, 세 자녀가 모두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않은 것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뜻밖에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어떤 행사에서 두 자매와 함께 산책하면서 눈물로 임신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저의 이모 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모 캐롤은 "나도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세 분 다 임신했고, 할머니에게 알리기 두려워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를 낳았고, 이모들은 사랑하는 사촌인 랜디와 앤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명은 **20명**의 아이들을 낳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거나 아이들을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이들은 그 시기를 견디게 해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때, 저를 붙들어 준 것은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미래를 생각하며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유산. 유산에 헌신하십시오. 강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결혼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 생명을 주는 동맹을 형성하고 세상에서 평화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평화를 추구하기

- 이 지침은 현재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망명 중에 매우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분열이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증오, 싸움, 다툼이 우리의 작은 임대 집 지붕 위에 짙은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추하고 무겁고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 하나씩 풀어가며 답을 찾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왕국에만 초점을 맞춘 논쟁에 빠지면, 나는 끝없는 분노와 좌절의 순환에 빠지게 되고, 평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 신경 쓰고, 진리(**T**)에 대해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의로움, 평화, 기쁨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의 왕에게 내 인생을 맹세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분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내 삶에 의로움, 평화, 기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도 내 임대 주택을

고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그분이 건설하고 계신 왕국에 집중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어진 곳에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어떤 무서운 타협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빌론의 모든 사람들이 내 관점에 동의하도록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 관점을 그들의 관점에 맞추기 위해 기꺼이 바꾸려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부수지 않고 건설하려는 의지입니다. 말하기 전에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들이는 것,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옳다는 사랑과 맞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내가 임차인인 도시를 향한 내 마음과 반응과 태도를 예수님이 형성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그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움에서 걸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알 수 없습니다 - 이 재료들은 서로 의존적입니다 - 그리고 내가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로서 세 가지를 모두 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의로움에서 걸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나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혼란 속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며, 내가 현재 임시로 점유하고 있는 이 슬픈 세상에 생명을 심을 수 있는 능력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 RESPONSE